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98호 【루계 제25807호】 주체106(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모든 부문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김정일애국주의열풍속에 국토의 면모가 달라진다

전국각지에서 가을철국토관리성과 계속 확대

주체의 붉은 당기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폭풍노도처 나아가는 내 조국강산에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국토관리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받들고 고향산천을 더 잘 꾸리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가을철국토관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국토의 면모가 또다시 달라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00여km의 도로를 건설 및 기술개건하고 500여km의 콩크리트포장도로구간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며 1 800여km의 강하천구간을 번듯하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도록 수만세대의 살림집과 수천동의 공공건물, 250여개소에서의 다리건설 및 개건보수도 진행하였다.

이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천하제일강산으로 꾸려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같은 애국적열정이 안아온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국토관리총동원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며 국토의 면모를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어울리게 일신시키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어디서나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가 선군문화의 중심으로, 본보기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더 잘 꾸려지고있다.

대동강구역 청류지구의 면모가 불과 수십일동안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되였고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는 수도시민들의 체육문화생활에 적극 기여할 종합적인 체육촌이 보란듯이 일떠섰다. 또한 경치좋은 련못동지역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이 6개월남짓한 기간에 훌륭히 건설된데 이어 보통강환수공사, 대동강유보도개작 3단계공사를 비롯한 수도의 환경보호사업에 이바지할 큼직큼직한 작전들이 전개되여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지방도시들과 농촌마을들의 면모도 몰라보게 달라지고있다.

평안남도의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수천세대의 살림집보수공사를 통이 크게 작전하고 내밀어 성과를 거두었다. 수많은 살림집들을 번듯하게 개건보수한 남포시를 비롯하여 전국각지에서 거리와 마을, 일터와 공원, 유원지들을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결과 조국의 모습이 한결 환해지고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줄수 있게 되였다.

강하천들을 규모있게 정리하고 도로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로반의 기술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있다.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든든한 배심을 안고 떨쳐나선 덕천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5만 6천여m^3의 토량처리와 7천여m^3의 제방쌓기를 해야 하는 대동강제방공사과제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대동군과 평원군, 문덕군들에서도 크고작은 강하천들의 바닥파기와 제방쌓기를 속도와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전과령역을 계속 넓히고있다.

다른 도들에서도 이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여 전국적으로 1 100여km의 강하천구간들에서 제방쌓기와 장석공사를 새로 하거나 보수하였다. 또한 700여km의 강하천구간들에서 180여만m^3의 바닥파기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많은 토지와 공공건물, 살림집들을 큰물로부터 보호할수 있게 하였다.

나라의 얼굴이며 경제발전과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인 도로의 건설과 기술개건사업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품이 많이 드는 평성―남포도로개건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해제끼고있다. 김형권군과 백암군, 김형직군에서는 각 방향으로 뻗어나간 도로들의 기술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고있다. 고원군에서도 도로들의 기술개건사업에 힘을 넣은 결과 운행길에 나선 운전사들 누구나가 좋아하고있다.

리원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수백m^2의 콩크리트다리를 훌륭하게 일떠세웠다. 영광, 정평, 장진군을 비롯한 함경남도안의 여러 군들에서는 이미 있던 나무다리를 콩크리트다리로 교체할 목표를 세우고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황해남도를 비롯한 다른 도들에서도 계획된 다리보수과제를 질적으로 해제꼈다. 전국의 250여개소에서 다리건설 및 개건보수공사가 진행되여 국토의 면모가 또다시 달라지고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할 때 당의 원대한 국토건설구상은 반드시 현실로 펼쳐진다는 철의 진리를 더더욱 심장깊이 새긴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해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일

당결정은 우리의 생명

◇ 전당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과업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전원회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과 함께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무조건 수행할 철석의 의지를 당결정들에 쪼아박고있다. 당앞에 다진 결의를 끝까지 지키려는 수백만 당원들의 기세는 더없이 충천하다.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당원들은 《올해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하였다고 어찌 순간이나마 탕개를 늦출수 있겠는가. 우리 당원들이 결사대가 되어 석탄산을 더 높이 쌓아올리고 최고의 증산성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자.》라고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그들만이 아닌 전력, 금속, 화학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의 당원들, 온 나라 전체 당원들이 당의 부름에 일제히 화답해나섰다. 불비속에서 당결정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넣던 전화의 로동당원들처럼…

◇ 당결정은 우리 당원들의 생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첫째가는 의무이며 혁명적본분입니다.》

오늘도 깊은 감명을 주는 예술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참된 로동당원인가를 가르쳐주는 귀중한 교과서이다. 《당원들이 죽었어두 세포결정서는 살아있어요. 전사한 당원들이 돌아오지 못했다구 당결정서를 홍정하자는거예요? …당원 한사람이 남아있는 한 절대루 그렇게 할수 없어요.》 이렇게 절절히 말하며 500t의 소금을 생산할데 대한 당결정을 마지막까지 집행하고 숨진 처녀당원의 모습은 우리 당원들의 심장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고동쳐야 하는가를 깊이 되새겨주고있다.

당결정은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뼈가 부서져도 완강하게 기어이 수행해나가는 불굴의 정신력에 의하여 관철되는것이며 이 길에서 빛나는것이 로동당원의 영예이다.

◇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이것이 당결정을 대하는 우리 당원들의 투철한 립장이고 기풍이여야 한다.

얼마전 《로동신문》에는 아홉달 남짓한 기간에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의 자랑찬 투쟁소식이 실리였다. 올해 첫시작부터 전례없이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당세포결정으로 채택한 이들은 그것을 관철하기 전에는 물러설 자리도, 쓰러질 권리도 없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10월 5일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전부 끝내였다. 당결정을 어떻게 집행하여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고결한것인가.

우리 시대 당원들은 이들처럼 살아야 한다. 당에서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앞장에서 풀어드리지 못하고서야 무슨 당원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자기 단위, 자기 초소를 당중앙을 굳건히 지켜선 일선참호로 여기고 당결정관철에 한몸을 아낌없이 내대는 여기에 로동당원의 진가가 있다. 모든 당조직과 당원들은 전원회의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목표 점령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자면 올해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드높이 년초부터 총돌격전을 벌려 지난 9월말까지 새형의 5t급 화물자동차들의 총조립을 전부 결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이들은 화물자동차들에 대한 시운전과 주행시험을 진행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과제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오철수, 최장일, 김철웅동무를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첫 화물자동차를 만들어낸 전세대들의 그 투쟁정신, 창조본때로 새형의 자동차생산목표를 점령하자고 하면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련합기업소기술일군들과 자동차설계연구소 설계가들은 현장에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설계를 하나하나 완성해나갔다.

생산의 앞공정을 담당한 회색주물직장 기술자, 로동자들은 총공격전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였다. 하여 40여종에 수십개의 주물품생산을 예정기일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주강직장에서는 감속기본체, 앞제동기본체 등 수십종에 150여개의 주강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였으며 금형직장에서는 주물품과 주강품생산에 필요한 각종 지구장비를 수백개나 만들어냈다. 또한 형단조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가열로의 숨결을 순간도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종전에 3일이나 걸리던 로보수를 불과 15시간동안에 해내고 크랑크축, 분배축, 련결대, 추진축 등의 소재를 제때에 보장하였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가운데 제관과 가공, 조립단위들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대형차제관직장 일군들과 기능공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제관품들에 대한 작업을 지구장비를 리용하여 단번에 해제낄수 있는 방도를 찾아냄으로써 많은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 작업속도를 2.5배로 높이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가공품들의 가공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대형차1직장과 정밀가공직장사이의 유기적결합을 실현하여 기관본체, 감속기본체 등에 대한 가공속도를 2배로 높이였다. 기관총조립을 맡은 승리기관직장에서는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집단주의열풍을 일으켜 화물자동차에 설치할 기관조립을 앞당겨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일군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과의 련계밑에 두뇌전, 기술전을 벌려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파급기를 우리 식으로 제작하였으며 자주호기판분공장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변속기를 만들어냈다.

련합기업소아래 각 단위들에서는 생산적앙양의 된바람을 거세차게 일으키며 맡은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여 화물자동차총조립전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게 하였다.

전투의 나날 련합기업소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창조의 낮과 밤을 이어가며 생산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 화물자동차생산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 기능공들은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협동생산품을 제때에 보장하였다.

지금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새형의 화물자동차들에 대한 시운전과 주행시험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비완성전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오철훈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룡성베아링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여러가지 남새품종들을 육종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맛좋고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남새품종들을 새로 육종하고 그 생산을 늘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이곳 과학자들은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로 새로운 남새품종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붉은통양배추 등을 육종해냈으며 분홍색시금치를 비롯한 갖가지 남새들을 풍토순화시키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생물공학기술에 의거하여 종전보다 생육기일을 훨씬 앞당기면서도 생산량을 1.2배로 높일수 있는 가을배추품종을 연구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볼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정보당 수백t의 열매남새를 생산할수 있는 남새재배방법과 사무실이나 가정들에서도 영양액에 의한 남새농사를 실현할수 있는 새 기술을 내놓았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첨단돌파전의 열풍속에 이들이 새로 연구개발한 우리 식의 현대적인 수경온실은 여러 단위들에 도입되어 은을 내고있다.

연구소에서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에 대한 집필과 함께 능력있는 과학자들을 전국의 온실운영단위들에 파견하여 현지강의와 기술지도를 실속있게 벌려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시대적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발표 1돐기념

연구토론회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시대적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발표 1돐기념 연구토론회가 24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와 직맹일군들, 직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과학성을 깊이있게 해설론증한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직업동맹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정치적무기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시대적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은 주체혁명의 새 시대 로동계급과 직맹조직들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주영길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로작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직업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불멸의 대강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로작은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뚜렷이 명시해주고있다.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는 혁명의 핵심부대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나라의 맏아들이다.

우리 사회의 선진부대이며 핵심력량인 로동계급이 기관차가 되고 본보기가 되어 앞장에서 이끌어나갈 때 모든 사회성원들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변혁하는 거창한 위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나갈수 있다.

로작은 주체혁명위업의 력사적전환기에 직업동맹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총적투쟁과업을 새롭게 제시해주고있다.

직업동맹이 전 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총적투쟁과업으로 틀어쥐고 동맹건설과 활동을 벌려나가야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수령의 혁명전사가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 조직성과 규률성, 전투성을 지닐수 있으며 높은 창조적능력과 집단주의정신을 지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수 있다.

《직업동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력적인 령도와 크나큰 믿음속에 창립되고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온 로동계급의 대중적정치조직이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위력한 전투부대》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근로단체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공선일동지는 이렇게 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당을 창건하신데 이어 북조선로동조합총련맹을 결성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직업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로동계급이 혁명의 전위부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직업동맹건설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계승하시여 직맹조직들이 정치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으며 몸소 대중운동의 봉화를 지펴주시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집단적, 련대적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우리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전후 짧은 기간에 이 땅우에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웠으며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의 엄혹한 시기에도 사생결단의 각오와 의지로 조국수호전과 부강조국건설에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위력한 전투부대로 위용떨칠수 있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강철만동지는 《전 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조선직업총동맹의 총적투쟁과업》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론증하였다.

전 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직업동맹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중적정치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에서 맡고있는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모든 직맹조직들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만이 차넘치는 사상적순결체, 당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고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만들어야 전 동맹이 수령님들의 직업동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다.

전 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또한 로동계급의 혁명화, 정예화를 실현하고 그의 핵심적, 선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전 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총적투쟁과업으로 틀어쥐고 동맹건설과 활동을 벌려나갈 때 로동계급의 사상정신적풍모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변혁하는 사업에서 로동계급이 핵심적, 선도적역할을 다할수 있다.

《조직사상생활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모든 직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금성정치대학 부학장 신광철동지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직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옳게 조직하고 지도하는것은 직업동맹의 기본임무이며 모든 동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동맹조직사상생활의 총적목표이다.

그것은 우선 조직사상생활이 직맹원들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조건으로 되기때문이다.

직맹조직들이 조직사상생활지도를 강화하여야 모든 직맹원들이 정치적생명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칠수 있다.

다음으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체득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되기때문이다.

직맹조직들이 조직사상생활지도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을 때 모든 직맹원들은 사상교양의 학교이며 조직적단련의 용광로인 조직생활을 통하여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할수 있다.

평양시직맹위원회 위원장 김경수동지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은 직업동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로작에 제시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데 대한 사상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직업동맹이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옹호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길을 밝혀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모든 직맹조직들과 일군들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 선전선동사업을 화선식으로 활발히 벌려 그들모두를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자기 일터를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의 전방초소로 여기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다지고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로작에서 제시하신 사상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직업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비약과 변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탁월한 령도

온 나라에 비약과 혁신의 거세찬 열풍이 나래치고있다.

원쑤들의 제재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력갱생의 마치소리 우렁찬 속에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린 국방력강화의 뢰성들과 경제전선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 날로 늘어나는 년간계획완수자들의 대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줄달음치며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솟구치는 주체의 조국.

이는 이 땅우에 만난을 짓부시며 끊임없이 비약하는 파괴한 공격전의 시대, 눈부신 기적과 변혁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낳은 자랑스러운 현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감회도 깊은 주체102(2013)년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력사적인 호소문은 온 나라 천만군민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단숨에의 정신으로 스키장건설을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밀고나갈것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라는 열렬한 호소,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을 올해안에 무조건 건설하여 마식령지구에 사회주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간곡한 당부, 우리 당이 군대와 인민을 믿고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던 힘있는 고무가 온 나라를 불덩이마냥 달구어주었다.

정녕 그날의 호소문은 우리가 잘살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고있던 그때 온 나라를 대혁신, 대비약에로 힘차게 부르는 진군나팔소리였고 바야흐로 이 땅에 펼쳐질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알리는 장엄한 뢰성이 아니였던가.

하지만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우리 원수님의 그 호소가 얼마나 벅찬 래일에로 이어져있는가를 아직 다는 알지 못하였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을 불러일으키신 그 결심으로 그이께서는 보성버섯공장을 찾으시였고 며칠후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시였다.

평양국제축구학교, 룡악산인민체육공원, 창성군,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안주시 송학협동농장 남새온실을 비롯하여 6월 한달동안에만도 얼마나 많은 공장과 단위들을 찾으시였던가.

이렇게 흘러간 그해의 하루하루였고 그 다음해의 날과 달들도 격동의 련속이였다.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시며 우리 원수님께서 주체104(2015)년에 온 나라를 주름잡으신 불멸의 자욱들이 력력히 어려온다.

미래과학자거리와 평양국제비행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신천박물관을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 《바다 만풍가》의 노래소리 높이 울린 포구들…

우리 원수님의 자욱을 따라 거창한 기적과 변혁이 창조되였다. 방방곡곡에로 이어지는 그이의 현지지도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세계를 앞서나가는 주체조선의 전진속도는 더더욱 빨라졌다.

정녕 놀라운 현실이였다.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시대, 온 나라 도처에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는 시대, 행복과 번영의 노래소리가 하늘과 땅, 바다를 진감하는 희망찬 시대가 열리였다.

이 경이적인 현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였다.

그 잊지 못할 나날에로 달리는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숭엄해진다.

지난해 1월 주체혁명의 앞길에는 앞으로도 영광의 천리길, 만리길만이 펼쳐지리라는것을 확신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언하시였다.

우리 당은 승리와 영광의 해인 2016년의 장엄한 서곡으로 울린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삼고 올해를 승리자의 해로 이끌어 강국건설의 대번사시를 써나가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주인공들인 우리 인민에게 더 큰 승리의 월계관을 안겨줄것이라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련전련승의 장쾌한 포성으로 만난을 짓부수고 세기를 비약해온 년대들이 주체혁명사에 찬연히 빛나고있다. 그 자랑찬 력사를 더욱 줄기차게, 더욱 눈부시게 이어가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그 뜻을 심장에 새기며 천만군민모두가 산악같이 일떠섰다.

절세위인의 결심과 의지는 천만의 심장속에 고귀한 믿음으로 새겨져 시대를 또 한번 격동시키고 우리 혁명을 더 힘차게 떠미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지난해에 벌어진 70일전투와 200일전투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켰다.

그 불바람속에서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시대의 기념비들은 그 얼마이던가.

최후승리의 려명을 부르며 보란듯이 솟구쳐오른 려명거리가 우렷이 안겨온다.

지난해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에 나오시여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였을 때 세계는 들썩하였다.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비할바없이 방대한 대건설작전, 더우기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와 봉쇄속에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그것도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결속한다는것은 정녕 신화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었다.

속도만이 아니라 창조의 목표는 또 얼마나 높았던가. 21세기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 최상의 문명이 응축된 거리…

일심단결되고 자력자강의 정신을 체질화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과학이고 승리라는것을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지난 3월 중순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분초가 다르게 전변되고있는 려명거리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려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고, 인민들과 또 하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모습에서 우리 가슴뜨겁게 느끼지 않았던가.

이 땅에 창조되는 기적과 변혁은 진정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지상락원, 행복의 별천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 자나깨나 심장을 불태우시는 우리 원수님의 뜨거운 열망, 간절한 념원의 분출이였음을.

하기에 누구나 려명거리를 두고 우리 당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기념비라고 소리높이 웨치는것이리라.

이 땅에서 일어난 기적과 변혁도 놀라운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경이롭고 자랑스러운것은 거세찬 비약의 열풍속에서 사람들이 몰라보게 달라진것이다.

지금에 와서 보면 려명거리건설은 하나의 혁명대학과정이였다.

단 한해사이에 려명거리와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역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우리 군대와 인민, 세상을 깜짝 놀래운 신화의 주인공들은 창조적능력만이 아니라 배짱과 담력이 자라고 안목이 넓어졌으며 자신심이 커졌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서 자력자강으로 통쾌하게 승리하는 법을 다시한번 새롭게 터득하였다.

우리 원수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는 그대로 천만군민을 비약에로 이끈 돌풍이였고 거창한 승리의 비결을 새겨주는 뜻깊은 자욱이였다.

때로는 하늘길에 오르시여, 때로는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우리 원수님께서 새기신 자욱 그 얼마이던가.

한해 남짓한 기간에 무려 4차례나 찾으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창조하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몸소 고기배에 오르시여 고기비늘묻은 어로공들의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포구마다에서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이는 새로운 어로신화들이 창조되였다.

희한한 변혁과 대경사들이 경제전선에서만 터져올랐던가.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속도로 핵억제력강화의 경이적인 사변들을 련이어 탄생시킨 이해의 나날을 잊을수 없다.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주체식열핵무기의 장쾌한 뢰성…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의 구호를 맨 앞장에서 선창하시며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위험천만한 시험장소들과 조립현장, 발사장들을 찾고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온 나라를 종횡무진하시며 천만군민을 불러일으켜 주체조선의 새로운 영웅신화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하신 우리 원수님은 기적과 변혁의 위대한 향도자, 제일기수이시다.

정녕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련전련승으로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진군속도는 그대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안으시고 찬란한 래일에로 질풍처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강행군속도였다.

나날이 백배해지는 혁명열, 투쟁열에 넘치시여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도 강행군속도를 더욱 높이시며 총진군대오를 힘차게 이끄신다.

천만군민이여.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신심드높이, 더 기세충천하여 떨쳐나서자.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고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체질화한 군대와 인민의 힘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온 나라 강산이 들썩하게 비약의 발구름높이 최후승리에로 질풍처나아가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에서 모두다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본사기자 한 영 민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지난 1950년대에 미제는 전후 조선이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놈들이 보란듯이 자기의 힘을 믿고 용약 일떠섰다.

사람이 제발로 걷지 못하면 언제나 남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것처럼 나라가 제발로 걸어나가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예속되기마련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남의 힘을 빌어 살아가는것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어려운 때일수록 자력갱생의 보검을 더 높이 추켜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떤 일을 하는데서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가 전후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우에서 그처럼 빨리 일떠설수 있은것도 우리 인민들이 당의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투쟁하였기때문입니다.》

주체42(1953)년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김책제철소(당시)의 파괴상태와 복구전망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전에 제철소의 확장공사를 위한 기술준비기간이 모두 얼마나 걸렸는가에 대해서도 물으시였다. 일군은 제철소의 확장공사를 전쟁전에 어느 한 나라의 기술적방조를 받아서 하게 되어있었는데 현지조사와 설계를 작성하는데만도 여러해가 걸리였다는것을 말씀올리였다.

사실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실정을 잘 모른데도 있었지만 자기 일처럼 여기지 않은데도 그 원인이 있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 공사는 종시 착수조차 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이에 대하여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그렇기때문에 모든것은 자체로 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자체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여 수령님께서는 당장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극복하고 투쟁한다면 멀지 않아 우리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급격히 향상시킬수 있다고, 그러자면 남의 힘을 바랄것이 아니라 우리자체의 힘으로 이 모든것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광산개발리용설비를 사올것이 아니라 광산기계를 생산하는 기계공장을 꾸리고 자동차를 사올것이 아니라 자동차공장을 세우는 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하여 충당할수 있는 자립적민족공업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자력갱생의 불길은 우리 인민들의 심장을 활활 불태웠으며 온 나라를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게 하였다. 공장과 농어촌 그 어디서나 세인을 놀래우는 복구건설전투가 벌어졌다. 만짐을 지고 발걸음에 불꽃이 일게 달리고 밤낮이 따로 없이 창조적열정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부족한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 마침내 승리의 개가를 높이 부른 우리 인민이였다.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3개년계획을 불과 2년 8개월만에 빛나게 완수한 력사의 기적은 이렇게 마련되였다.

위대한 전통은 계승으로 빛나는 법이다. 전세대들이 높이 휘날린 자력갱생의 기치를 오늘은 우리 세대가 높이 들었기에 적들의 극악한 제재압살책동은 걸음마다 물거품으로 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만난을 박차고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이 땅우에 으뜸가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를 가슴깊이 되새기고있다.
—평양제1백화점에서—　　안 성 혁 찍음

주체조선의 승리력사를 길이 전하는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

고산진혁명사적관 훌륭히 개건

【만포 10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고산진혁명사적관이 새로 개건되였다.

사적관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탁월한 군사전략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주체조선의 승리전통의 자랑찬 력사를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줄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사적비와 표식비,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정중히 꾸리고 잘 관리하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고산진혁명사적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준엄한 시기였던 주체39(1950)년 11월초부터 12월 중순까지 고산진에 계시면서 반공격을 위한 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전쟁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혁명사적관에서는 총서홀과 여러 전시실들에 《조국해방전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실 원대한 구상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고산진에서 새 작전을 구상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고산진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진문헌들을 새로 정중히 모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998년 10월 22일 고산진혁명사적지를 돌아보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아로새겨져있는 혁명사적지를 력사주의적원칙에서 원상그대로 보존관리하며 당시의 사적물들과 원천자료들을 많이 발굴하여 전시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사적내용도 전시되어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산진에 계시면서 작성하신 80여건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서와 수십건의 내각지시, 결정서 등이 보충전시되였다.

혁명전통교양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만포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사적관을 개건확장하고 사적물들과 자료들의 전시체계와 형식을 새롭게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사적관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릴 불타는 충정을 안고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면서 내외부미장과 타일붙이기 등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개건공사를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였다.

사적관의 일군들과 학술연구원들도 해당 단위들과의 련계밑에 혁명사적자료들을 발굴고증하고 종합체계화하는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새로 꾸려진 고산진혁명사적관으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을 만년재보로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신념의 대오,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오가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넣어

신흥군 경흥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의 내용을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환히 꿰들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사상교양사업을 통하여 리안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결사관철할 드높은 열의밑에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림 학 철

룡라도가 전하는 뜻깊은 사연

어머니 우리 당의 따사로운 인민사랑에 떠받들리여 아름답게 꾸려진 룡라인민유원지!

조용히 그 이름 불러볼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은 룡라도를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꾸려주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와 저도모르게 눈굽을 뜨겁게 적시군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일군과 함께 룡라도를 돌아보시던 때에 있은 일이다.

이날 룡라도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섬주위를 둘러보시다가 룡라도는 참 좋은 곳이라고, 원래 평양은 버들이 많아서 《류경》이라고 했고 룡라도는 대동강물우에 실실이 늘어진 능수버들이 마치 비단필을 풀어놓은듯하다고 하여 《룡라》라고 부르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날 여기 버들숲그늘아래에서 돈많고 권세있는 놈들이 배를 두드리고있을 때 섬안의 척박한 모래땅에서는 굶주리고 헐벗은 농민들이 수박이나 심고 남새밭이나 일구어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자신께서는 이 섬을 통채로 수도시민들의 훌륭한 유원지로 꾸려줄 생각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일군의 가슴은 달아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코 소풍이나 하시려고 여기에 나오신것이 아니였음을 깨닫게 되였던것이다.

격정에 휩싸여있는 일군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언제인가 말했지만 꽃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이 화원을 가꿀수 없듯이 자기 조국산천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조국을 위하여 몸바쳐 일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언제나 조국을 위해 한목숨바친 영웅들이 지녀였던 뜨거운 조국애의 정신을 지니고 살며 일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일군의 생각은 깊어졌다.

세상에 조국에 대한 사랑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것은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조국, 오늘 우리 세대가 살고있으며 또 후대들이 자자손손 살아갈 삶의 보금자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자랑스러운 전통이 깃들어있는 아름다운 우리 조국강토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 어찌 애국헌신에 대하여 말할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일군을 다정히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룡라도주변을 따라가며 제방을 쌓고 여러가지 꽃나무와 과일나무를 심으며 공원과 운동장도 건설하고 편의봉사시설을 구색이 맞게 꾸려놓으면 으뜸가는 유원지로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룡라도를 잘 꾸리자고, 앞으로 룡라도까지 잘 꾸려놓으면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휴식터를 안겨주게 될것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수십년전 그날에 벌써 룡라도를 수도시민들의 훌륭한 유원지로 꾸리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활짝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룡라도는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눈부시게 전변되였다.

본사기자 정 순 학

은혜로운 사랑의 자욱어린 영광의 땅

평원군 삼봉리를 찾아서

온 나라가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며 신심드높이 달려가는 천만군민의 투쟁열기로 하여 조국땅이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그 어느 공장, 그 어느 협동벌에 가보아도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인민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얼마전 우리가 찾았던 평원군 삼봉리도 마찬가지였다.

아담하게 꾸려진 리소재지에서 우리와 만난 이곳 일군은 리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절세위인들의 뜻을 빛내이는 길에 한몸 다 바쳐가는 삼봉리인민들의 혁명적열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문제와 농민문제는 우리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우리 당은 이 문제의 해결에 시종일관 깊은 주의를 돌려왔습니다.》

해방후의 첫봄에 오신 그날로부터 어버이수령님께서 새기신 발자취는 그 얼마이고 농장의 발전을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 기울이신 사랑은 또 얼마였던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 수령님들께서 금시라도 농장에 오실것만 같아 가슴이 뜨거워오른다는 삼봉리의 농장원들이다.

우리와 만난 김창준리당위원장은 지금으로부터 60년전 9월 벼바다 설레이는 논벌에 서시여 농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갈마든다고 말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주체46(1957)년 9월 25일 평안남도 평원군 삼봉리 삼봉농업협동조합(당시)에 오시여 농민들의 생활을 보살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해빛처럼 인자하신 영상이 눈앞에 어려오는것만 같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을에 찾아오시게 된데는 깊은 사연이 있었다. 그해 3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길에 리의 어느 한 양수장수로공사장에 들리시였다.

이날 리의 민청원들은 물문제를 풀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차에서 내리시자 그들은 저저마다 뚝으로 올라와 환성을 올리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수고들 한다고 하시며 한걸음 다가서시였다. 정작 그이앞에 섰으나 일하던 손인것으로 하여 주저하는 청년들의 속마음을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없다고 하시며 그들의 험한 손들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공사를 빨리 하여 묵은 땅을 개간하고 논으로 풀며 한평도 묵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작업장으로 향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찬기운이 가셔지지 않은 날씨에 감탕이 질벅한 길 아닌 길을 걸으시며 오히려 감탕속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날씨가 추운데 발이 시리지 않은가고 여간만 걱정하지 않으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청년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농사를 잘 지으라고, 가을에 또 오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고 떠나시였던것이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한 농민들의 감격은 이를데 없었다. 그날 그이께서는 정보당 남새수확고를 더 높여야 하며 남새를 많이 생산하여 부식물문제를 풀고 그 부산물을 리용하여 축산업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벼작황을 보시기 위하여 벌로 나가시여서는 설레이는 벼바다를 바라보시며 마촌부락 앞포전의 벼가 잘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앞포전의 정보당 예상수확고가 얼마나 되는가도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3년안으로 모든 논에서 벼 정보당 수확고를 다 이런 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어떻게 하면 삼봉리농민들이 더 잘살게 하겠는가를 깊이 생각하시며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삼봉리의 과수원도 돌아보시였다. 그이의 은덕아래 한폭의 그림인양 아름다운 과수원도 펼쳐졌으니 알알이 물감을 들인듯 빨간 사과알들은 볼수록 흐뭇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신듯 기쁨에 넘치시여 평원사과는 맛이 좋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에게 조선의 사과가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사과를 많이 생산하여 조선의 사과를 세계에 널리 자랑하자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삼봉리를 여러차례나 찾으시여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도 삼봉리에 거룩한 자욱을 새기시던 나날에 자체로 농사를 짓는 문제를 비롯하여 농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토지정리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리의 농업생산에서는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뿌려주신 만복의 씨앗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풍성한 열매로 주렁지고있다.

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는 사업에 모를 박고 농장원들의 가슴속에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높은 생산성과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빛내이도록 하고있다.

농장에서는 유훈관철투쟁의 불길속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특히 벌방지대이건 산간지대이건 어디서나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자면 결정적으로 종자혁명을 하여야 한다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이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전영철기사장을 비롯한 농장관리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과학기술에 의거하고 우량품종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 자체로 농사짓는 농장의 영예를 빛내여가고있다. 특히 모내기를 비롯한 영농공정들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고있으며 앞선 영농방법을 도입하여 알곡생산을 높여나가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속에 살기 좋은 리상촌으로 전변된 농장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나날이 흥할 래일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최 유 일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추동하자

일군들의 기관차적역할이 중요하다

만포시당위원회 사업에서

만포시에서 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과학기술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조건이 갑자기 좋아졌거나 다른 단위의 기술적방조를 받아서인가. 아니다. 조건도 그 조건이고 인재도 그 인재들이다.

비결은 시당위원회가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한데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시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은 무엇인가.

정책적요구와 일군의 안목

어떤 사업이나 그러하듯이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도 해당 단위 당책임일군의 안목은 중요한 작용을 한다. 당책임일군의 정책적안목이 높은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에서 큰 차이가 생기게 되는것이다.

그 실례를 보자.

시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문제이다.

지금은 시과학기술위원회가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시안의 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주도해나가고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렇지 못했다.

건물을 보아도 다른 기관과 청사를 같이 리용하고있었고 물질적토대측면에서 보아도 원만하지 못했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이것을 대하는 일군들의 관점이였다. 시당책임일군이 과학기술위원회청사를 시의 중심으로 옮겨 번듯하게 꾸려주자고 하였을 때 일부 일군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미 있던 건물을 잘 보수해주면 되겠는데 꼭 다른 청사를 내야 하겠는가. 물질적토대구축을 위한 자금은 어디서 해결하겠는가. …

거기에도 일리는 있었다. 시에서 대상건설을 많이 벌려놓은 조건에서 결코 헐한 문제가 아니였다.

그러면 이것을 단순한 실무적문제로 보아야 하겠는가.

시당책임일군은 그것을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대하는 일군들의 사상관점문제로 보고 투쟁의 불을 걸었다.

시과학기술위원회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사업은 오늘 못하면 래일 해도 될 사업이 아니다. 더 물러설 길이 없다.

시과학기술위원회를 잘 꾸려 시의 과학기술사업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비상히 높이자는 시당책임일군의 호소는 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말로만 하지 않았다. 실천으로 이끌었다. 많은 실험설비들이 요구된다는것을 알고는 해당 단위 일군들과의 련계밑에 폐하측정기를 비롯한 수백점의 실험설비, 시약들을 해결하여주었다.

능력있는 일군을 시과학기술위원회 책임일군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인재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여 강력한 연구집단을 꾸려주었다.

당책임일군의 이런 사업태도, 일본새가 일군들에게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옳바른 관점을 세워주었으며 그 과정에 시과학기술위원회사업에서는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났다는데 대해서는 더 렬거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만일 시당책임일군이 높은 정책적안목을 가지고 현실을 대하고 이끌어주지 못했다면 시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오늘과 같은 성과를 기대하지 못할것이다.

시의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중심고리를 옳게 포착하고 키잡이를 바로해나간것이 시당위원회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의 하나이다.

옳은 방법론과 지름길

과학기술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일군들이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일해나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과학자, 기술자들속에서 나온 기술혁신안들을 제때에 현실에 받아들여 일반화해나간 시당위원회의 사업은 시사적이다.

지난해 시에서는 새 기술보급소 연구사들의 이악한 노력으로 종자피복제, 식물성장촉진제, 누에먹이첨가제를 현실에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대하는 일군들의 립장은 하나같지 않았다.

일부 일군들은 지난 시기의 경험만을 고집하며 이 사업에 선뜻 뛰여들지 못하였다.

바로 이런 때 그것을 자기 단위에 선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나서는 일군들이 있었다.

건상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과 리당위원장이였다. 그들로 말하면 과학기술에 남달리 관심이 높은 일군들이였고 이 농장은 지난 시기 선진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는 농장이였다.

시당책임일군은 이런 단위를 도입단위로 정하면 연구성과가 빠른 기간에 은을 낼수 있다고 보았다.

시당책임일군은 본보기단위를 정하는데만 그치지 않았다.

능력있는 연구사들을 현지에 파견하였다.

매일이다싶이 현장을 찾아 도입정형을 알아보고 걸린 문제도 풀어주는 시당책임일군의 헌신적인 모습은 연구사들에게 자기들이 지닌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게 하였고 더욱 분발해나서게 하였다. 그리하여 시당책임일군과 농장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술혁신안은 빠른 시일안에 현실에 도입되여 실천에서 큰 은을 내게 되였다.

시당책임일군은 농장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여 이들이 거둔 성과와 경험을 시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 제때에 일반화하였다. 보여주기사업에 참가한 일군들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이룩한 이들의 성과를 제눈으로 직접 보며 승벽내기로 자기 농장들에 받아들이였다.

그리하여 시의 알곡생산에서는 새로운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이곳 시당위원회의 경험은 당책임일군들이 높은 정책적안목을 지니고 옳은 방법론으로 과학기술사업을 떠밀어줄 때 단위사업에서 비약적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최영길

기술자들의 가슴에 새겨진 모습

박천군 단산리당위원회에서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한다는 박천군 단산리당위원장에 대한 취재를 위해 현지에 도착했을 때 리당위원장이 없었다. 순간 취재가 난감하게 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실망할 필요는 없었다. 대중속에 들어가 두 기술자를 만나보니 예상외로 소득이 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어머니된 심정으로 언제나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주어야 합니다.》

처음으로 만난 제1작업반 기술원 어동무에게 우리가 홍의성리당위원장에 대해 묻자 그는 불시에 눈언저리가 붉어지더니 하나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기술원으로 사업하던 그가 과오를 범하여 농장원으로 일하던 때의 일이였다고 한다.

지난해 모내기전투가 한창이던 어느날이였다.

리당위원장은 일이 바쁜 속에서도 어동무를 두고 왼심을 쓰며 그가 일하는 작업반을 찾았다.

어동무의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을 알아본 리당위원장은 가슴이 아팠다.

과오를 범했다는데로부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를 차게 대하고있었다. 그의 안해마저 남편을 책망하며 집을 떠나 친정으로 가버렸다.

심리적고충이 컸던지라 때로 이핑게저핑게를 대며 일터에 잘 나오지 않는가 하면 나중에는 작업반을 뜰 잡도리를 하고있었다.

작업반초급일군들도 그에 대해 도리머리를 치며 차라리 본인이 원하는대로 다른 작업반에 보내자고 하였다.

그때 리당위원장은 그들을 따뜻이 일깨워주었다.

상처입은 자식일수록 감싸안아 더 따뜻이 보살펴주어야 한다. 이것은 당의 뜻이다. 어제날 기술원을 하던 그의 립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보았는가.

그후 리당위원장은 어동무에게 보다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그는 일군들이 어동무의 안해에게 거듭 걸음을 하면서 꾸준히 설복하여 그의 가정을 먼저 안착시키도록 하였다.

리당위원장은 자주 현장에 나가 어동무와 일도 같이하면서 그의 생활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애로되는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가 조직과 집단의 방조속에 자기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분발하여 일할 때에는 기술원의 직무를 다시 맡아 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기술원으로 임명되던 날 어동무는 당조직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또한 그때 다진 마음속결의대로 기술원의 직무수행에서 높은 실적을 냈다.

관리위원회 한 기술일군이 더듬은 추억은 또 얼마나 뜨거웠던가.

남보다 일판을 크게 벌려보려는 욕망을 앞세우던 나머지 그는 한때 사업에서 본의 아닌 잘못을 저질렀었다. 후과를 생각하며 위축되여있던 그를 리당일군은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보증해나섬으로써 그가 신심에 넘쳐 창조의 나래를 더 활짝 펼치게 하였다.

그후에는 작업반기술원들과 합심하여 그가 받아들이려는 선진영농방법이 실천에서 은을 내게 하였다. 이 과정에 그 기술자는 기술혁신의 능수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였다.

성격도 나이도 생김새도 서로 다른 두 기술자의 체험담이였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습을 그려주었다. 기술자들이 진정으로 어머니라고 정담아 부를수 있는 참된 당일군의 모습이였다.

본사기자 장철범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 설 때

증산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내놓은 연구성과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추동하고 인민생활향상에 도움을 주는것으로 하여 어느것이나 다 귀중하다. 하지만 부뚜막의 소금도 가마에 넣어야 짜다고 보다 중요한것은 그들의 연구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이는것이다.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증산군당위원회 일군들이 힘을 넣은 문제가 바로 이 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전달받았을 때였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리영진군당위원장의 뇌리에는 김관성 군농기계작업소 기사장이 오래전에 자화식연유절약기를 개발했다고 하던 군과학기술위원회일군의 말이 떠올랐다. 당책임일군은 지체없이 그를 찾아갔다.

사연을 알게 된 그는 오래전에 자화식연유절약기를 개발하여 전국적인 농기계전시회와 과학기술축전에서 1등을 한 사실을 말하면서 군안의 《천리마》호뜨락또르들에 100% 도입할것을 계획했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20대밖에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훌륭한 연구성과였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했는가. 그것을 행정일군들이 해야 할 일로만 여기면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떠밀어주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다.

군당책임일군은 자화식연유절약기를 도입하는 과정을 통해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줄 결심을 굳히였다. 이렇게 되여 지난 8월 군당일군들과 기술자들, 협동농장 당, 행정일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협의회가 열리였다.

그날 협의회참가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였다. 군농기계작업소 기사장이 자화식연유절약기를 오래전에 개발했다는것이였다. 군당책임일군은 협의회참가자들에게 말하였다.

《농업군인 우리 군에서 뜨락또르들의 가동률을 높이자면 결정적으로 자화식연유절약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연구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려는 립장이 투철하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일군들이 받은 자책은 컸다.

다음날 자화식연유절약기도입이 군당위원회결정으로 채택되였다. 농기계작업소의 기술자들과 기능공들, 3대혁명소조원들로 기술력량이 무어졌다.

군당위원회는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사업조건을 잘 보장해주어 그들이 자화식연유절약기도입에서 헌신성을 발휘해나가도록 이끌어나갔다. 군당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따라 필요한 자재를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해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군당책임일군이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필요한 자재를 실어오기 위해 한밤중에 수백리길을 다녀와 도입조성원들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후방물자를 준비해가지고 때없이 현장을 찾아와 도입조성원들과 한밤을 새우기도 했다. 자기들보다 더 마음을 쓰며 발벗고나서는 당책임일군의 헌신성에 고무된 도입조성원들은 낮에 밤을 이어 긴장한 전투를 벌려나갔다. 하여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군안의 《천리마》호뜨락또르 수백대에 자화식연유절약기를 도입하여 많은 연유를 절약하게 했다.

그 공로로 군농기계작업소 기사장은 제44차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회의에서 새기술도입상을 받았다. 이것을 계기로 군당위원회일군들은 기술자들이 내놓은 연구성과가 실천에 도입되자면 당조직들이 그 정형을 알아보고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떠밀어주어야 한다는 교훈을 찾았다.

그후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당적지도가 더욱 심화되였다. 기술자들이 내놓은 연구성과를 빠짐없이 도입하여 군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증산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 자신을 비추어보아야 한다. 묻혀있는 기술혁신성과가 없는가를 알아보고 제때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당적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비약적발전이 이룩되고 사회주의강국건설도 앞당겨질것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합심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연탄세멘트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일이 잘되는 단위는 하나같이 당, 행정배합이 잘되는 단위들이다.

연탄세멘트공장이 최근년간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며 비약하는 비결의 하나도 바로 당, 행정배합이 잘되는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도 과학기술지식을 가져야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수 있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 원만히 할수 있습니다.》

안철남초급당위원장의 솔직한 고백이 있다.

《공장에 임명되여온 날이 교훈적인 날로 되였습니다.》

로일순지배인을 따라 공장의 생산현장들을 돌아보던 첫날에 있은 일이였다고 한다.

생산계획은 매해 수행한다고 하지만 질좋은 세멘트를 더 많이 요구하는 현실의 요구에 미처 따라서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생산공정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지배인의 말속에는 생소한 어휘들이 적지 않았다.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초급당위원장이였다.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있던 초급당일군은 지배인과 헤여지기 바쁘게 우정 공무작업반 반장을 찾아가 종전에 리해되지 않던 기술용어들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초급당위원장은 그날 과학기술실력이 부족하면 행정일군들과 말이 잘 통하지 않게 될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이것은 당, 행정배합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되여 그는 과학기술실력문제를 당일군의 자격문제로 제기하고 첫걸음부터 실력전에 스스로 뛰여들었다.

지배인과 만나는 과정은 물론이고 사업의 모든 과정을 허심하게 배우는 과정으로 만들었다.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짬을 내여 과학기술보급실을 자주 찾군 하였으며 세멘트생산과 관련한 과학기술지식들을 부단히 습득해나갔다. 이렇게 앞채를 메고 온 공장에 선진과학기술을 배우는 된바람을 일구어나갔다.

초급당일군은 또한 지배인의 결심이 실천으로 어김없이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그가 오기 몇해전에 사업을 시작한 지배인은 기술혁신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였었다. 그는 매 종업원들이 1건이상의 기술혁신안을 제기하도록 하고 공장적인 기술혁신목표를 전례없이 통이 크게 세운데 기초하여 그 실현을 위하여 낮이나 밤이나 모지름을 쓰고있었다.

초급당일군은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는데 공장의 운명과 전도가 달려있다고 보는 지배인과 발을 맞추어 언제나 기술혁신전투를 벌리는 기술자, 기능공들속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크링카생산의 량과 질을 개선하는데서 절실한 바람량을 늘이기 위해 송풍기를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던 과정에 실패했을 때 초급당일군은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깊이 심어주어 마침내 성공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하였다. 제진장치를 새롭게 제작하기 위한 기술혁신조에 망라된 한 기능공이 남모르는 가정적고충을 안고있을 때에도 그것을 어머니심정으로 속깊이 헤아리고 제때에 풀어주어 기술혁신에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쏟아붓도록 하였다.

세차게 타오른 기술혁신의 불길속에 공장의 생산은 비약적으로 장성하였으며 올해의 총공격전에서도 새 기준, 새 기록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그러니 이런 성과를 두고 당, 행정일군의 합심이 안아온 열매이라고 하는 이곳 종업원들의 말은 결코 무리가 아닌것이다.

지식경제시대에 매개 단위 당, 행정일군들의 합심은 과학기술중시의 보폭을 함께 할 때만이 공고해진다.

연탄세멘트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은 이것을 강조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새로운 영웅신화창조의 불길 세차게 타오르는 백두전구

‖ 216사단에서 ‖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보다 훌륭히 꾸릴데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216사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기슭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다.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본보기군, 표준군, 모범군으로 일떠설 삼지연지구의 래일을 그려보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일떠선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날이 저물고 새날이 밝는 격전장들. 우리는 혜산-삼지연 철길건설장을 비롯한 백두전구의 여러 대상공사장들에 세차게 나래치는 결사관철의 기상과 변모되는 현실을 사진에 담는다.

현지보도반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강계시에서 련일 진행

자강도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랑만을 안겨주며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강계시에서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자강도안의 주요공장, 기업소 로동계급을 비롯한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명성높은 예술단체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앞을 다투어 공연장소를 찾고있다.

출연자들은 남성3중창과 남성합창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경음악과 노래련곡 《당이여 그대 있기에》, 무용 《달려가자 미래로》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통하여 조국과 혁명을 백승에로 이끄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안고 당을 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강용한 기상을 감명깊은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이였다.

뜻깊은 10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로동당찬가, 사회주의의 전진가들은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오늘의 총돌격전의 앞장에서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갈 자강도인민들의 혁명적열의를 백배해주고있다.

공연은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기술혁신의 앞장에 우리가 서자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

최근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신의 선구자된 긍지와 영예를 안고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첨단돌파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새 세기 산업혁명수행에서 3대혁명소조가 한몫 단단히 할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전력공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지식경제시대에 자기들이 지니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비상한 애국적열정과 창조정신으로 두뇌전, 기술전을 과감하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 김경호동무는 전력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던 4불화수지기밀고리를 자체로 제작할수 있는 생산공정을 확립하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기압축기기밀고리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하였다.

흑연솔비저항측정장치제작과 수자식탈염수류량측정체계개발 등 1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과제들을 완성하여 전력생산에 이바지한것을 비롯하여 전력공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속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수도려객운수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기술혁신운동을 과감하게 벌리며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 파견된 리지성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칠감의 부착세기를 높이고 건조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전력소비를 낮출수 있는 먼적외선도장건조로를 설계제작함으로써 무궤도전차도색의 질을 훨씬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쌍극철심전동기와 새로운 용접기를 제작하는 등 의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완성한것을 비롯하여 수도려객운수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속에서 높이 세운 기술혁신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갈 불같은 열의밑에 체신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분발해나서고있다.

체신은 나라의 신경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한 평양빛섬유통신케블공장 3대혁명소조원 리연희동무는 공장기술집단과의 협력밑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안고 이악하게 노력하여 불과 넉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섬유케블완성피복흐름선의 주름강형성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해냈다.

또한 15회선교환기와 전자석제동장치제작 등 2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과제들을 완성하여 정보통신설비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경공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바쳐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가치있는 기술혁신성과들을 많이 이룩하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3대혁명소조원 림송동무는 인공잔디를 만들어본 경험도 없었지만 세계와 당당히 맞설 3대혁명전위의 담대한 배짱과 만만한 야심을 지니고 막아서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나가는 과정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권사기와 합사기, 식모기를 설계제작하여 인공잔디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밖에도 6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과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평양양말공장 3대혁명소조원 리남경동무도 당의 크나큰 믿음을 언제나 소중히 새겨안고 첨단돌파전을 과감히 전개해나가는 과정에 새로운 착상으로 설계를 완성하고 우리 식의 조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장의 통합생산체계확립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높은 안정성을 가진 우리 식의 고온고압염색기를 제작하였다.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안겨줄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평양밀가루가공공장 3대혁명소조원 김정림동무는 단백질과 비타민E를 비롯한 여러가지 필수영양물질들이 들어있는 밀눈을 종합처리할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확립하고 갖가지 기능성식품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적극 도모할수 있게 하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3대혁명전위의 기개를 높이 떨치기 위한 투쟁은 시안의 농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속에서도 세차게 벌어졌다.

락랑구역 류소남새전문협동농장과 형제산구역 신미남새전문협동농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성공시킴으로써 생산을 늘일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또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3대혁명소조원들도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기술혁신성과들을 많이 내놓았다.

시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술혁신성과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으로 하여 얼마전에 진행된 평양시 3대혁명소조 기술혁신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양시안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기술로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을 열고 강성부흥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올 포부를 안고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첨단돌파전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허 일 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제6차 전국법무일군대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제6차 전국법무일군대회 참가자들이 24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해주시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태양영생의 언덕에 올랐다.

그들은 법무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온 나라에 혁명적법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수령보위, 정책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총련일군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김성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군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한평생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장은 우리 민족이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김일성대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초등학원, 평양가방공장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후대들을 위해 바친 뜨거운 진정

평성시 양지동사무소 일군들과 주민들

평성시소재지로부터 순천방향으로 얼마간 가느라면 아름다운 색으로 단장된 2층짜리 건물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이 건물이 바로 평성시 양지동사무소의 일군들과 동안의 주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평성시 양지유치원이다.

어린이들의 보육교양, 성장발육, 지능계발에 이바지할수 있게 꾸려진 교양실과 음악실, 놀이장들이며 계단과 복도에 새겨진 직관물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후대들을 위해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친 동사무소의 일군들과 주민들의 깨끗한 마음이 그대로 어려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성시 양지유치원은 몇해전에 새로 생겨난 유치원이다. 그때는 어느 한 단위에서 쓰던 건물을 리용하고있었다. 넓은 홀을 가지고있는 유치원은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면서 마음껏 뛰여놀기에는 안성맞춤하였지만 교양실과 지능놀이실, 침실 등이 원만히 갖추어져있지 못하여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지난해 3월 어느날 유치원에 찾아와 실정을 료해하게 된 양지동 초급당위원장 조성애동무의 얼굴에는 그늘이 비끼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잘 먹고 마음껏 뛰놀아야 온 나라에 행복의 웃음소리, 사회주의웃음소리가 더 높아질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후대들을 위해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가기 위해 그는 동자체의 힘으로 유치원건물을 건설할것을 결심하였다.

시당위원회에서 그의 생각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며칠후 조성애동무와 유치원원장 김현숙동무는 밤깊도록 마주앉아 유치원건설문제를 토의하였다. 얼핏 타산해보아도 150여t의 세멘트, 8t의 철근, 500㎥의 혼석이 있어야 하였다.

동의 일군들과 주민들은 탁아소, 유치원을 동자체의 힘으로 짓는 운동을 벌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으로 받들고 모두가 떨쳐나섰다.

동안의 주민들은 앞을 다투어 조기작업에 떨쳐나섰으며 11지구의 30명 가두녀성들은 자진하여 건설장으로 달려나왔다.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지만 로보옥, 정명화, 홍선옥동무를 비롯한 녀성들은 대오의 앞장에서서 걸싸게 일해나갔다. 유치원원장 김현숙동무와 고영철, 김영기, 강철경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도 주인된 립장에서 건설에 떨쳐나섰다. 마지막층막치기작업을 할 때였다. 공사속도를 보장하느라 돌격대원들은 힘이 진할대로 진했다.

누구도 일어설념을 못하고있을 때 조성애동무는 작업조직을 새롭게 하고 야간전투를 들이대여 단숨에 끝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앞장에 서서 전투지휘를 하였다. 그리하여 10시간만에 층막치기공사를 끝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동사무소의 일군들은 필요한 마감건재를 보장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였다.

후대들을 위한 일에는 네일내일이 따로 없었다.

건설의 나날 조성애동무는 매일과 같이 건설장에 나와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나갔으며 가정에서 마련한 갖가지 음식들과 장갑을 비롯한 수많은 물자들을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또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선동활동을 벌려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적극 북돋아주었다. 주민들도 유치원건설에 아낌없는 지원의 마음을 바치였다.

동사무소일군들과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유치원건물은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시안의 여러 단위들에서는 풍금, 악기를 비롯한 교구비품들을 그쯘히 갖추어주었다.

이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유치원의 면모를 보다 일신시키기 위해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아이들을 위해 온갖 정과 열을 다 바치는 이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든다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혁 철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자강도안의 일군들의 안해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일터들에 자원적으로 진출하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위원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의 안해들이 올해 1월부터 남파지구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주민세대들에 대한 출판물보급사업을 스스로 맡아하고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왕복 수십리길을 오가면서 당보를 비롯한 출판물들과 우편물들을 신속정확하게 보급하고있는 강현미동무를 비롯한 5명의 녀성들의 정신세계와 헌신적인 모습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있다.

룡림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안해들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일에 자기들의 깨끗한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5년전 가족소대를 무은 이들은 륜전기재들의 운행과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읍지구의 10여리 도로구간을 맡아 관리하여왔다. 오금숙동무를 비롯한 10여명의 가족소대원들은 산림복구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매일 읍에서 멀리 떨어진 군모체양묘장에 나가 나무모밭김매기를 하면서 이곳 종업원들을 고무해주었다. 또한 군소재지에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새로 건설할 때에도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바치였다.

그리고 지난해 학생교복생산이 제기되였을 때에는 군피복공장에 달려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사업에 자신들의 모든것을 다 바친것을 비롯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있다.

중강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안해 30명은 읍지구의 4.4㎞구간에 대한 도로를 맡아 책임적으로 관리하고있으며 동신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안해 18명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읍협동농장에 진출하여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우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희천시인민보안부 아래단위 인민보안원들의 안해 12명은 지난 3월 가족소대를 뭇고 도로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이들은 매일 수십리길을 오가면서 2 000m구간에 있는 연석을 보수하였다. 그리고 4 000㎡의 도로주변에 잔디와 코스모스를 심었으며 1만 7천여그루의 가로수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였다. 이들은 지난 7월과 8월 무더위가 계속되는 속에서 1 000여㎡의 도로피치포장을 하여 그 면모를 일신하는데 한몫하였다.

동신군인민보안부 인민보안원들의 안해 12명은 지난 7년간 가족소대를 뭇고 수㎞구간의 철길을 맡아 자기들의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다. 이밖에도 성간군인민보안부 아래단위의 인민보안원들의 안해들도 10여년전부터 가족소대를 뭇고 성간군 성룡남새전문협동농장 제2작업반의 5정보 밭을 기름지게 걸구었다. 그리고 해마다 수십t의 강냉이를 생산하여 나라의 쌀독을 채우는데 이바지하였다.

랑림군인민보안부 인민보안원들의 안해들은 가족중대를 뭇고 수십정보의 부업지에서 농사를 알심있게 짓고있으며 중강군인민보안부 여러 아래단위 인민보안원들의 안해들도 읍과 오수리, 중상리, 중덕리의 농장들에 자원진출하여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힘과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특파기자 김 순 홍

독자의 편지

훌륭한 청년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것은 특류영예군인인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수년세월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기계과학기술대학 학생 홍청송동무를 널리 자랑하고싶어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어느날 홍청송동무는 삼륜차에 앉아 병원으로 향하는 저를 보게 되였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것이 인연이 되여 홍청송동무의 발걸음은 우리 집뜨락으로 이어지게 되였습니다.

그는 수시로 우리 집에 찾아와 건강상태는 어떠한가, 생활상애로는 없는가 등을 알아보고 땔나무도 해주고 담장도 수리해주면서 친혈육의 정을 쏟아붓군하였습니다.

홍청송동무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입학하여서도 저와 우리 가정에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는 대학공부를 하는 바쁜 속에서도 자주 전화로 저의 생활형편을 알아보고 기회가 있으면 저의 집에까지 찾아와 성의껏 마련해가지고온 보약재와 생활필수품들을 안겨주면서 제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고무해주었습니다.

지난해 제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병치료를 받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홍청송동무는 매일 저녁 귀한 약재들과 식료품들을 안고 찾아와 저의 병이 빨리 완쾌되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제가 수술을 받은 후에는 꿀과 닭곰을 비롯한 보약들을 또다시 성의껏 마련하여가지고 찾아와 밤을 새워가며 저의 침상을 지켜주었습니다.

친혈육이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홍청송동무의 진정을 대할 때마다 저와 저의 안해는 이런 훌륭한 청년을 키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마음속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군 합니다.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이 되여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 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황주군 읍 156인민반
특류영예군인 김 광 일

유엔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유엔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24일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유엔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를 비롯한 주조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외무성, 보건성, 국토환경보호성, 농업성 등의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 유럽동맹협조대표부, 이딸리아외무성 개발협조대표부, 스위스외무성 협조사무소 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행사장에는 유엔개발계획,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 대표부들에서 진행한 협조활동을 소개하는 사진, 도서 등이 전시되여있었다. 참가자들은 전시장을 돌아보며 여러 분야에서 국제기구, 단체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유엔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는 연회를 마련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들이 떠나갔다

최재봉, 시송지를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들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개막되였다.

전시회에는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전국의 청년대학생들이 분초를 아껴가며 열심히 학습하는 과정에 이룩한 1 500여건의 가치있는 발명 및 정보기술제품들이 출품되였다.

개막식이 24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동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리충길동지,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학생청년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 배충일동지가 하였다.

그는 온 나라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이 차넘치고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는 시기에 진행되는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혁명인재육성사업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청년대학생들이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20대, 30대의 박사, 세계적인 발명가로 준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모든 학생청년들이 전시회를 통하여 학습과 과학탐구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더욱 분발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식민지주구들의 주제넘은 《당사자》타령

남조선괴뢰들이 그 무슨 《조선반도문제당사자》론을 들고나와 만사람을 웃기고있다.

얼마전 괴뢰통일부 당국자는 《국회 국정감사》업무보고라는데서 저들이 조선반도문제의 《핵심당사자》로서 《핵문제의 근본적이며 평화적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떠들었다. 그러면서 《평화정착방안을 주도적으로 제기》하여 《비핵화대화조건을 조성》하겠다느니,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압박》으로 《북을 비핵화협상탁으로 견인》하겠다느니 하고 력설하였다.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물론이고 주변나라들로부터 외면과 따돌림을 당하고있는 가련한 외토리가 존재감을 과시해보려고 《당사자》흉내를 내며 푼수없이 놀아대고있는것이야말로 조소를 자아내는노릇이 아닐수 없다. 괴뢰들이 《조선반도문제당사자》론을 운운하며 제재압박을 통해 《북을 비핵화협상탁으로 견인》하겠다고 떠들어댄것은 미국의 하수인으로서 달리 될수 없는 저들의 가련한 처지와 대결적본색을 더욱 여실히 드러내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당사자》타령을 늘어놓으면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분주탕을 피우는것은 저들의 처지도 모르고 앉을 자리, 설 자리도 가리지 못하는 참으로 주제넘은짓이다.

조선반도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의해 산생되였다. 우리에 대한 핵위협공갈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실현의 기본고리로 되고있다.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를 체계적으로 끌어들여 이곳을 거대한 핵화약고, 북침전초기지로 전락시킨 미국은 괴뢰들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각종 핵전쟁연습들을 뻔질나게 벌려놓았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검토하는 위험한 망동을 부린 사실,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올려놓고 북침핵공격태세를 끊임없이 강화해온 사실들은 널리 폭로되였다.

미국의 범죄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은 갈수록 짙어지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은 엄중히 위협당하였다.

우리는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가중되는 핵위협공갈과 침략책동에 단독으로 맞서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무궁한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자위적핵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조선반도핵문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여기에 남조선당국이 끼여들 아무런 명분도 없다. 괴뢰들이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벽도 문이라고 내다 미는 식으로 《핵심당사자》니, 《북핵문제해결》이니 하고 억지주장을 늘어놓고있는것은 실로 꼴불견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그 어떤 대화나 협상탁에 올려놓고 론의할 흥정물이 아니다. 국가방위를 위한 강위력한 핵억제력의 보유는 필수불가결의 전략적선택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려세울수 없다. 미국의 핵위협공갈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선택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

더우기 우리가 남조선당국과 마주앉아 핵문제를 론하는 일은 있을수 없다. 괴뢰들은 애당초 미련을 털어버려야 한다.

남조선괴뢰들은 그 무슨 《당사자》에 대해 떠들기 전에 아무런 자주권도 없고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상전의 대결망발이나 앵무새처럼 외워대는 저들의 창피스럽고 비굴한 처지부터 돌이켜보아야 한다.

괴뢰들이 핵문제해결에 그토록 관심이 있다면 격에도 맞지 않는 《당사자》론을 운운하며 몸값을 올려보려는 허튼 장난질은 그만두고 조선반도의 핵전쟁위험을 날로 고조시키는 트럼프패거리들의 히스테리적인 북침전쟁광태를 문제시해야 할것이다. 이것을 외면하고 계속 《당사자》니, 《제재압박》이니 하고 고아댈수록 미국의 꼭두각시, 식민지노복의 추악한 정체만을 더욱 드러내는것으로 될뿐이다.

괴뢰들은 저들이 《조선반도문제당사자》론을 떠들어댈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해결할 힘이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하면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맥빠진 소리를 늘어놓은것도 미국의 허수아비가 되여 상전의 하수인 노릇밖에 할것이 없는 괴뢰들의 비참한 신세를 부각시키고있다.

괴뢰통일부패거리들이 저들의 가련한 처지를 애써 부인하며 아무리 《당사자》타령을 늘어놓고 무엇을 할듯이 허세를 부리여도 달라질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강력한 총대우에 민족의 존엄이 있고 평화와 부강번영도 있다는것은 력사의 철리이다. 만약 우리에게 핵억제력이 없었더라면 우리 민족은 필연코 미제에 의해 핵참화를 들쓰는 비극적운명을 강요당하였을것이다. 우리의 핵무력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담보해주는 정의의 보검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리성있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이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터무니없이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며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제재압박과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는것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동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전면부정하는 미국상전의 전대미문의 대결광증에 대해서는 바른소리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맞장구를 치며 북침전쟁불장난을 일삼는 괴뢰들이 감히 민족의 안전과 평화수호의 보검인 우리의 핵억제력을 무턱대고 헐뜯으며 그것을 제거하려고 미쳐날뛰는것이야말로 꼬물만 한 민족자주의식도 없고 초보적인 리성마저 상실한자들의 반역적추태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철저한 보수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 당국이 괴뢰보수패당의 북남대결망동이 초래한 후과부터 가시고 평화와 통일의 길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괴뢰통일부는 북남관계를 파국상태에 빠뜨린 보수《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나설 대신 초불민심에 한사코 역행하면서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있다. 이런 대결미치광이들이 우리와 마주앉을 생각을 하는것자체가 어리석기 그지없다.

괴뢰들이 북남대화탁에 핵문제를 올려놓으려고 꾀하면서 제재압박으로 《비핵화대화》를 실현해보려고 날뛰고있지만 그것은 영원히 이룰수 없는 개꿈에 불과하다.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제재압박의 종착점은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이 아니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완전파멸로 될것이라는 우리의 준엄한 경고를 똑똑히 새겨들어야 할것이다.

심 철 영

북침전쟁책동을 준렬히 단죄규탄

남조선에서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려놓는 미국과 괴뢰패당을 단죄규탄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계속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지난 16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남조선미국련합해상훈련의 중지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대규모의 련합해상훈련이 북침선제공격훈련으로서 조선반도에 전쟁위기를 불러오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들은 현 당국자들이 말로만 《전쟁불가》를 부르짖고 실제로는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적극 협력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은 전쟁동맹이며 민중이 원하는것은 오직 평화라고 하면서 련합해상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전쟁연습반대투쟁을 계속 벌려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새로운 반미투쟁본부를 결성하는 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전쟁위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오만방자한 트럼프의 전쟁광기를 꺾어버리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데 앞장설것을 호소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반트럼프, 반미투쟁으로 전쟁을 반드시 막아내자!》라는 제목의 격문을 발표하였다. 격문은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가 전쟁망발을 계속 불어대며 북을 자극하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리고 현 당국이 《싸드》배치를 강행하고 《대북제재》에 적극 합세해나선것도 모자라 트럼프의 《완전파괴》폭언을 지지하며 초불민심을 배신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격문은 트럼프와 미국에 적극 추종하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정부》가 과연 초불항쟁으로 집권한 《정부》가 맞는가고 반문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전쟁을 막고 미제침략군을 쫓아내야 한다고 하면서 그날까지 변함없이, 굴함없이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전쟁미치광이 트럼프는 입 닥쳐라!》, 《북침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싸드〉 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행진을 하였다.

대전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적폐청산대전본부도 17일 오후 대전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에서 한 인사는 조선동해와 서해에서 감행되는 련합해상훈련에 미국이 숱한 전략자산들을 동원하고 군부는 《년례적인 훈련》을 구실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고 하면서 낮에는 전쟁판으로 우리 민중을 협박하고 밤에는 술판으로 조롱하고있다, 정말 치떨리는 일이다고 까밝혔다. 대전평화녀성회 공동대표도 미국이 핵무기로 인류를 멸살시키려고 발광하고있다고 폭로단죄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치광이 트럼프의 망동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첨예하다고 하면서 미국은 《대북제재》와 북침전쟁연습책동 등을 중지하고 북과의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괴뢰당국의 호전적망동으로 조선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최악의 위기국면이 조성되고있는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자신들의 투쟁으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의지밑에 반미, 반전투쟁열기를 계속 고조시키고있다.

본사기자 엄 수 련

미군이 환경오염에 대해 책임질것을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14일 서울에서 《룡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2017 환경, 평화 룡산행진》을 하였다.

단체는 룡산미군기지주변의 약 2km구간을 행진하면서 미군기지의 정화와 반환을 요구하였다. 룡산기지의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여야 하며 오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인 미군이 져야 한다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단체는 올해말까지 기지주변에서 주간 4차의 행진을 하면서 기지의 온전한 반환을 위한 공연활동과 항의행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궁지에 몰린 정치철새들의 야합

남조선에서 각 정치세력들의 리해관계에 따른 정계개편바람이 몰아치고있는 속에 전형적인 정치철새들로 락인된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것들도 통합판에 뛰여들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김무성파와 그것을 반대하는 류승민파사이의 싸움이 벌어지고있다. 김무성파는 《자유한국당》의 친박청산놀음을 이 반역당에로 돌아가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면서 《보수우파통합추진위원회》라는것을 내오고 류승민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수통합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있다.

현재 《바른정당》은 소속의원이 한명이라도 줄어도 원내교섭단체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김무성파가 《자유한국당》에 집단적으로 가붙는 경우 이미 한번 쪼개진 《바른정당》은 그야말로 파산직전에 이르게 된다. 남조선언론들은 《바른정당》의 붕괴가 시간문제로 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이렇게 되자 지지률이라는것이 《국회》에 진출한 여야정당들중 최저로 떨어져 골머리를 앓고있던 안철수를 비롯한 《국민의 당》패거리들은 《바른정당》의 분렬을 저들의 세력확장을 위한 좋은 기회로 여기면서 류승민을 끌어당기기 위해 추파를 던지기 시작하였다. 이미 《바른정당》것들과 《국민통합포럼》이라는 정책련대기구를 내온 안철수패들은 《바른정당》의 위기를 교묘하게 리용하면서 제 리속을 채우려고 얄밉게 놀아대고있다. 며칠전 안철수의 한 측근인물은 오는 12월에 《바른정당》과 정식 통합할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안팎으로 곤경에 처한 류승민도 《국민의 당》과의 통합에서 살길을 찾으려 하고있다. 하지만 《국민의 당》과의 통합론의가 본격화되면서 《바른정당》에서는 그에 대한 반발도 일어나고있다.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에 가붙으려는자들은 류승민파가 《국민의 당》과의 통합을 추구하는데 대해 《야합》이라고 비난하고있다. 당안팎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류승민이 현재는 안철수와 만날 계획이 없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11월에 있게 될 《바른정당》의 전당대회이후 두 당의 통합움직임이 적극화될것이라는것이 남조선언론들의 한결같은 평이다.

《제3의 길》이라는 간판을 내건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놀음이 궁지에 몰린 저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다음해에 있게 되는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어떻게 하나 득세하여 권력야욕을 실현하려는 정치간상배들의 불순한 계책의 산물이라는것은 더 론할 필요도 없다. 뿌리도 다르고 걸어온 길도 판이한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것들이 벌려놓고있는 통합놀음은 오로지 정치적리해관계에 따라 여기저기에 옮겨앉는 정치철새들의 추악한 몰골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신문은 이렇게 전하였다.

《호남정당의 영상을 탈피하려는 안철수와 〈바른정당〉의 류승민이 추진하는 이른바 〈제3의 길〉통합은 사실상 반쪽짜리 통합이다. 한때 외부세력과의 련대를 거부하던 안철수는 순간에 련대론의 주창자로 돌변했다. 다음해의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둔 정략적리합집산이라는 비난을 면할수 없다. 끼리끼리 모였다가 헤쳐지는 낡은 정치와 이제는 결별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것들의 정치적야합이 남조선 각계의 비난과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그럴수밖에 없다.

안철수패거리들이 《바른정당》을 상대로 벌려놓고있는 통합놀음은 이 보수당의 분렬을 더욱 조장하여 김무성파가 《자유한국당》에 가붙는것을 정당화하는 결과에로 이어지게 된다. 남조선 각계는 《바른정당》것들을 끌어당기는 안철수패거리들의 《중도보수》야합이 종당에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세력이 재규합되게 하는 반면에 민주개혁세력을 더욱 분렬약화시키는 후과를 빚어내게 될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국민의 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꾀하는것이야말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파멸의 나락에 굴러떨어진 괴뢰보수패당에게 어부지리를 주고 죽어가던 이자들의 숨통을 열어놓는것으로서 초불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배신행위이다. 《국민의 당》의 망동이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남조선인민들은 초불민심은 아랑곳없이 권력야욕을 실현하는데만 미쳐돌아가는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패거리들의 불순한 야합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역겨운 정치간상배들에게 반드시 파멸의 철추를 안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불순한 목적이 깔린 안보장사놀음

남조선의 보수야당들이 날로 쇠퇴몰락하는 저들의 처지에서 헤여나보려고 실로 어리석게 놀아대고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떨거지들이 《북도발》이라는것을 구실로 《안보위기》를 적극 고취하면서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하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이다.

얼마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것들은 그 무슨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따른 《대응방안》을 토의한다고 하면서 《토론회》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여기에서 이자들은 《북의 핵, 미싸일위협》때문에 《안보위기》가 조성되고있다고 피대를 돋구었다. 그러면서 《북의 핵, 미싸일위협》이 심각한데도 당국의 안보정책이 오락가락하고있다고 집권세력을 몰아댔다. 이것은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지금 괴뢰보수패거리들은 입만 벌리면 《북의 도발》로 하여 《안보위기》가 고조되고있다고 아부재기를 치면서 민심을 계속 들쑤시고있다.

최근에는 괴뢰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안보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한 계기로 삼으면서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하다면 괴뢰보수패당이 진심으로 남조선의 안보가 걱정되여 이따위 놀음을 벌리는가 하는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자들이 그 어느때보다 《안보위기》, 《안보불안》에 대해 고아대는것은 남조선내부에 우리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불어넣는 동시에 현 집권세력을 안보무능세력으로 몰아대면서 저들이 안보문제에 관심이 있는듯이 냄새를 피워 민심을 끄당기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안보장사놀음은 괴뢰보수패당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괴뢰보수패당은 집권기간 심각한 정치적위기에 몰릴 때마다 우리를 걸고 《안보위기》소동에 열을 올리면서 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파멸의 함정에서 헤여나려고 발광하군 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보수의 부활을 노린 괴뢰보수패당의 갖은 술책에도 불구하고 이 추악한 시정배무리에 대한 민심의 증오와 분노는 계속 커가고있다.

특히 박근혜역도가 집권기간 저지른 각종 범죄사실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드러나면서 보수적폐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인민들의 의지는 날로 고조되고있다.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있는 괴뢰보수야당패거리들은 상투적인 수법대로 《안보불안》에 대해 요란하게 광고하여 저들에게로 향한 민심의 분노를 딴데로 돌리고 심화되는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얕은수를 쓰고있는것이다.

가소롭기 그지없는것은 지금 괴뢰보수패당이 저들을 《진정한 안보세력》으로 부각시키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는것이다. 최근 괴뢰보수패당이 《북핵위협》에 대해 고아대며 미국의 전술핵무기재배치문제를 들고나온것도 저들이 안보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다.

하지만 그런 유치한 술책은 통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집권기간 미국상전을 등에 업고 북남대결과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함으로써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남조선의 안보를 심각한 위협속에 빠뜨린 괴뢰보수패당의 죄악을 너무도 잘 알고있다.

미국의 북침전쟁사환군노릇에 극성을 부리며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위험을 짙게 몰아온 범죄자들이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도 《안보위기》를 떠들어대며 저들의 더러운 몸값을 올려보려고 획책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철면피한 시정배들인가.

남조선에서 《안보위기》, 《안보불안》을 고취하여 위기를 모면하는 괴뢰보수패당의 고리타분한 수법이 통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남조선인민들은 또다시 재현되는 괴뢰보수야당들의 구태의연하고 역스러운 안보장사놀음을 목격하면서 민심을 등지고 매국반역에 미쳐돌아가는 시대의 오물들을 하루빨리 제거해버려야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도 깃들게 된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안보불안》을 떠들며 사회를 소란케 하는 괴뢰보수패당을 규탄단죄하면서 반보수투쟁, 적폐청산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리 홍 철

우리 제품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난다

제28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장을 돌아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평양지하상점에서 제28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중앙과 지방의 경공업공장들, 성, 중앙기관들에서 내놓은 2천여종에 8만여점에 달하는 제품들이 출품되였다.

각종 편직제품과 질좋은 천류, 구두와 운동신을 비롯한 여러가지 신발제품 등으로부터 인민생활의 세부적인 요구를 반영한 제품에 이르기까지 그 가지수가 대폭 늘어난것도 좋았다.

하지만 보다 더 참관자들의 가슴을 흐뭇하게 하는것은 원료, 자재의 주체화가 확고히 실현되고 그 질적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명제품, 명상품들이 많이 전시된것이였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많은 인민소비품들은 또한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것은 물론 세계적수준에서 그 전망이 기대되고있다.

내용은 물론 형태와 색갈 등 여러가지 지표들도 우리가 실게 하고 우리 인민들의 기호와 요구에 맞게 창안제작되였다.

우리의것이 제일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의 원료와 자재에 철저히 의거한 제품들이 출품되여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경공업성 방직공업관리국에서 내놓은 데트론인견변직양복천을 실례로 들수 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천은 평조직과 빗줄조직을 결합하고 합리적인 밀도와 빔수를 선정한것으로 하여 질김성과 유연성, 드림성, 공기통과성이 높아 사용자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있는 제품이다.

이곳 전시대를 찾았던 사람들은 이 천을 보면서 우리 제품이 정말 좋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공장에서는 이번에 양복천만이 아니라 샤쯔천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 질좋은 천류들을 내놓아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자체의 힘으로 레이자빛에 의한 채본제작방법을 받아들여 여러가지 무늬의 천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할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가 마련된 사리원방직공장의 날염천들과 샤쯔천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을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였다.

사리원영예군인재봉사공장에서 출품한 데트론인견재봉실에 대한 참관자들의 수요도 대단하였다. 각종 의복류제작에 쓰이는 재봉실은 얼마전까지만도 자체로 해결할수 없는것으로 되여있었다.

하지만 경공업부문 일군들의 지도방조밑에 공장에서는 현대적인 데트론인견재봉실생산기지를 일떠세우고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평성합성가죽공장에서 내놓은 여러가지 가방들도 모양이 독특하고 우리의 원료로 만든 제품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자기의것을 믿고 열렬히 사랑할 때 자기의 힘에 대한 신심과 배짱도 생기고 자기의것을 빛내이려는 투철한 각오도 높아지게 된다.

전시회장을 돌아볼수록 적대세력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제재책동을 짓부시며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인민들에게 보다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안겨주기 위해 애쓰는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열렬한 지향과 뜨거운 조국애가 가슴뜨겁게 안겨옴을 금할수 없었다.

《인민들이 좋아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해당 단위들의 얼굴이 뚜렷한 명제품, 명상품들이 많이 전시되였다.

경공업성 편직공업관리국에서 출품한 녀자봄가을내의도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 제품들은 사용과정에 변형이 없고 자연섬유를 리용하는것으로 하여 피부감각이 부드러우며 인체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류원신발공장, 원산구두공장을 비롯한 각지 신발생산단위들에서 출품한 제품들도 인기를 끌었다. 신발접착제의 성능을 개선하여 제품의 수명을 늘이고 체육용운동신발들의 밑창에 기공을 조성하여 가볍고 탄성이 있으면서도 제품의 경량화를 보장하였다는 신발공업관리국 일군의 이야기는 우리의 호기심을 더욱 끌어당겼다.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의 벨라민수지제품들도 인기가 대단하였다. 이 수지제품은 인체에 해를 주지 않고 사용에서 편리한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있다. 이번에 공장에서는 벨라민수지로 만든 각이한 크기의 그릇과 접시, 쟁반, 생활용품들을 내놓았는데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모양이 독특하고 질이 높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식료일용공업성 일용공업관리국의 전시대도 사람들의 물결로 흥성이였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출품한 화장품들은 피부안전성, 사용효과성, 안정성담보측면에서 우수한것으로 하여 수요가 대단하였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생산한 살결물, 물크림과 미백 및 보습작용, 항균작용, 알레르기성질환에 효과가 있는 세수비누를 비롯한 여러 제품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우리의 화장품이 제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다.

이밖에도 잠업비단공업국에서 내놓은 각종 비단이불과 담요들도 호평을 받았으며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선흥식료공장을 비롯한 여러 생산단위들에서 내놓은 식료품들은 위생안전성과 영양학적측면이 높은 수준에 올라선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하였다.

돌아볼수록 생산자이기 전에 소비자라는 확고한 관점밑에 인민의 평가를 가장 공정한 심사로 받아들이며 멋따기, 허례허식이 아니라 세계와도 당당히 겨룰수 있는 질좋은 제품들을 내놓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헌신적복무자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전시장에서 만난 일군들은 저저마다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인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보다 다종다양해진 우리의 소비품

이번에 전시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것은 또한 지난 시기에 비해볼 때 소비품의 종수가 대단히 늘어났다는것이였다.

평양양말공장에서 생산하여 내놓은 각종 운동양말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공장에서는 체육선수들의 힘살구조와 뼈운동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밑에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롱구양말, 탁구양말, 정구양말을 비롯한 각종 운동양말들을 계렬생산하고있다.

또한 이들이 내놓은 운동용긴양말은 우리 사람들의 체질적특성에 알맞는것으로 하여 축구선수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의 제품들도 그 품종이 대단히 늘어났다.

공장에서는 사과, 배를 비롯한 과일들로 단물, 발효식초, 탄산단물, 단졸임, 과일즙, 요구르트, 알사탕, 단묵을 비롯한 무공해과일제품들과 함께 샴푸, 린스, 살결물을 비롯한 화장품들까지 생산하여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이번에 새로 개발하여 내놓은 여러가지 기능성음료들은 심사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 *

전시회에 출품된 하나하나의 제품들은 단순히 그 모양과 질적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그대로 어려있는것으로 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래일에 대한 희망과 락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돌아볼수록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가득 넘치게 하는 이번 전시회는 당이 제시한 자강력제일주의를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때 우리의 힘으로 보다 휘황한 앞날을 남들이 보란듯이 더욱 훌륭히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 참으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심 학 철

효능높은 미량원소복합비료 《수성천1》호

알곡수확고를 높이려면 질소, 린, 카리, 규소비료와 함께 미량원소비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미량원소가 부족하면 농작물이 초기생육단계에서는 작황이 좋다가도 가을에 가서는 결실을 잘 맺을수 없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량원소비료는 열매가 많이 달리고 잘 익게 하기때문에 알곡수확고를 높이자면 논밭에 반드시 미량원소비료를 제대로 쳐야 합니다.》

최근 여러 농촌들에서 리용하고있는 미량원소복합비료 《수성천1》호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수성천1》호는 농작물의 물질대사를 촉진시키고 빛합성능력을 강화해주며 뿌리활성을 높여 생장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이 복합비료속에는 식물이 자라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미량원소들이 들어있다. 이 복합비료를 농업부문에 리용하면 알곡 및 남새작물의 수확고를 높일수 있으며 적은 화학비료를 가지고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거둘수 있다고 한다.

가을밀농사에서 성과를 본 평원군 배전협동농장 제12작업반 반장의 말을 들어봐도 좋은 점에 대해 알수 있었다.

작업반에서는 가을밀비배관리를 하면서 《수성천1》호를 물에 풀어 잎덧비료주기를 5차례정도 진행한 결과 여문률이 높아지고 천알질량도 늘어났다. 또한 이것을 리용하여 벼종자처리를 진행하였다. 류산철에 의한 종자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살균작용과 충분한 영양성분을 보충해주는것으로 하여 싹튼률이 높았고 싹이 자라는 속도도 빨랐다.

모판단계에서도 병견딜성이 높아 하나같이 실한 모를 길러냈다고 한다.

좋은 점은 이뿐이 아니다.

가물과 염피해를 막는데서도 효과가 높았다. 신천군 석당협동농장 제1작업반의 경험이 이것을 보여주고있다.

올해에 작업반에서는 《수성천1》호를 리용하여 가물피해를 줄이였다고 한다. 그 비결의 하나는 이것으로 잎덧비료주기를 진행한 포전들에서 논벼뿌리가 다른 포전의것보다 더 깊이 뻗어내린데 있었다. 또한 가물이 들면 의례히 논벼가 염피해를 입었지만 그 피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작업반에서는 모내기이후 시기부터 이삭패는 시기를 전후하여 7차례정도의 잎덧비료주기를 진행하였는데 하나같이 벼대가 실해졌으며 이삭당 알수와 평당 유효아지수도 지난 시기보다 더 늘어났다고 한다.

발농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신계군 천개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강냉이밭에 《수성천1》호를 물에 풀어 여러차례의 잎덧비료주기를 진행하였더니 잎이 넓어지고 색이 진해지면서 강냉이의 생육상태가 좋아지는것이 눈에 띄게 알렸다고 한다.

이 미량원소복합비료는 해당 부문 연구사들의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에 의하여 연구개발되였다. 미량원소복합비료 《수성천1》호가 알곡생산에서 은을 내게 될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리 충 일

조선로동당은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어머니당

10월의 명절들에 즈음하여

불멸의 꽃 김정일화전시회
몽골에서 개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에 즈음하여 불멸의 꽃 김정일화전시회가 10일 몽골 다르한 울도에서 개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에 떠받들려 활짝 피여난 수백상의 김정일화와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전시회개막식에는 몽골의 여러 단위 인사들과 군중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관계부문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몽골 김정일화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며 따르고있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다.

오늘 조선은 불패의 군사강국, 핵강국으로 위용떨치며 미국에 당당히 맞서나가고 있다.

다르한 울도 행정사무국 대외관계부 부장과 다르한 울도 기술대학 학장은 뜻깊은 날들에 즈음하여 불멸의 꽃 김정일화전시회가 진행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 적극 기여할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예술소품공연을 관람하였다.

여러 나라 정당, 단체 대표단들과 각계인사들
우리 나라 대표부들을 축하방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 《ㅌ.ㄷ》결성 91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정당, 단체 대표단들과 각계인사들이 3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들을 축하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 절세위인들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캄보쟈 크메르민주당, 메히꼬인민사회당, 김일성, 김정일동지회고 메히꼬친우협회, 메히꼬주체사상연구소, 메히꼬조선친선협회 대표단들과 이란이슬람교련합당 국제사업담당 부총비서일행, 방글라데슈자티야당 총비서, 방글라데슈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방글라데슈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 로씨야의 전로로병사회단체 《전투적우의》 연해변강지부 위원장일행, 민주콩고인민혁명당 총비서대리, 민주콩고대학생 및 학생련맹 전국위원장, 적도기네민주당 국제부 부부장일행, 앙골라발명가협회 위원장일행 등 각계인사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한편 8일과 9일 방글라데슈 민용항공 및 관광상인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 공보상인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베닌 《김정일장군 만세》친목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보내여왔다.

미래를 귀중히 여기는 조선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 《ㅌ.ㄷ》결성 91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전람회 개막식이, 메히꼬에서는 경축집회와 도서 및 사진전시회, 벌가리아에서는 도서, 사진 및 미술전람회가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위대한 당의 령도아래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창조적재능을 보여주는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인도네시아외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국 국장은 뜻깊은 행사에 참가하게 된 기쁨을 피력하고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보다 두터이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 나라의 쟈야 쑤쁘라나음악연구소 소장은 연구소에서 전람회개막식을 진행하는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조선의 인민적시책들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미래를 귀중히 여기는 조선을 따라배워야 한다, 조선은 매우 발전된 나라이라고 찬양하였다.

메히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창건된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백승만을 떨쳐온 조선로동당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당의 령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진두에 모신 우리 인민이 앞으로도 나라의 자주권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영웅적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말하였다.

벌가리아 브라짜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 및 공보쎈터 관장은 조선의 현실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이번 전람회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호상리해를 두터이하고 문화분야에서의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백승의 조선로동당》
이란, 로씨야의 출판보도물들 특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에 즈음하여 이란, 로씨야의 출판보도물들이 특집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과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영상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이란의 일나통신은 7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조선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중되는 제재와 압박속에서 굴복하기는커녕 계속 솟구쳐오르는 비결은 무엇인가.

국제사회는 이 나라를 이끌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정치방식에서 그 비결을 찾고있다.

통신은 조선로동당의 정치를 자주정치, 선군정치, 인덕정치라고 특징짓고 그를 립증하는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렬거하였다.

로씨야신문 《쎄르쁘 이 몰로뜨》 10월호는 《10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조선로동당창건 72돐 맞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서술하였다.

1945년 10월 10일에 창건된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1926년 10월 17일에 결성된 타도제국주의동맹에 력사적뿌리를 두고있다.

조선로동당의 72년사는 당이 인민의 리익을 언제나 첫자리에 놓고 인민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여온 력사이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서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왔다.

신문 《자브뜨라》는 8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김정일, 당건설에서의 불멸의 업적》, 《김정은령도자의 기상》, 《백승의 조선로동당》 등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은 김정일각하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각하의 투철한 수령관, 확고부동한 정치적신념, 세련된 령도예술에 의해 당의 조직사상적통일과 단결이 반석같이 다져졌다, 나라와 인민을 위한 선군장정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신 절세위인의 거룩하신 영상은 오늘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고 전하였다.

신문은 김정은령도자의 기상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나 전격적으로 해제끼는 단숨에의 기상,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련속공격의 기상, 천하를 뒤흔드는 초강경의 기상에 대해 소개하였다.

신문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 하바롭스크변강인터네트신문 《제브리 데웨》도 5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김정은, 그이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을 길들이는 핵무기를 가지고 조선로동당창건 72돐을 맞이하고있다》를 비롯한 여러 제목의 글들을 게재하였다.

신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령도업적을 칭송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당이 모든 사업에 사상사업을 철저히 앞세우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해나가도록 이끌고계시는데 대하여 렬거하였다.

또한 미국이 떠드는 《북조선위협설》의 허황성을 폭로하고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떠민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국이라는 사실을 까밝혔다.

인터네트잡지 《렐쥐취》는 9일 《어머니당》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리념과 주의주장에 따라 정당들도 많지만 조선로동당처럼 인민이 진정으로 어머니당으로 부르는 당을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투쟁하는 당은 오직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어머니모습으로 간직된 조선로동당밖에 없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한평생 애민헌신의 길을 걸으시면서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도록 이끄시였다.

그이의 손길아래 조선로동당은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어머니당으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어머니당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다.

신문 《니쥐고로드스까야 쁘라우다》 제69호는 8면 한면에 걸쳐 특집한 글 《김정은동지는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상징》에서 우리 당의 불패성의 요인이 지도사상과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있다고 평하고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불패성을 말할 때 수령의 위대성에 대해 말하지 않을수 없다.

수십년간 조선로동당을 이끌어오신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는 당의 강화발전에 실로 거대한 공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불패의 당으로서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가고있다.

세계 진보적정당들의 본보기당
여러 나라 정당과 단체 성명,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정당과 뽈스까단체가 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로동당은 창건 첫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70여년간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오로지 승리만을 떨쳐왔다.

조선로동당은 그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과 영원한 수반이신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로 변함없이 나아가고있다.

이것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우리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이 최후승리를 향한 전체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이끄는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뽈스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탐구를 위한 국제친선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조선혁명의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이다.

조선로동당은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인민을 따뜻이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이다.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있는 조선로동당은 창건초기부터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운명을 같이하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왔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는 조선로동당이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가장 훌륭한 당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르면서 그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조선로동당은 세계 진보적정당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이것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 김정은각하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에 즈음하여 말리, 브라질인사들이 2일과 8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말리민족련대성발전당 앙골지역위원회 비서 디 된은 조선인민이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김정은각하를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선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조선은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

브라질주체사상연구쎈터 위원장 가브리엘 곤쌀베스 마르띠네스와 서기장 알렉싼드르 네베스 로젠두 다 쎌바는 공동담화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그이의 한생은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일관되여있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제국주의침략세력의 횡포한 도발책동에 단호히 대처할수 있었다.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아래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계속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자주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리라고 확신한다.

【조선중앙통신】

최후의 승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조선의것이다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 강조

우리 나라를 방문한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 쏭치트 풀랍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에서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조선방문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정말 많은것을 보고 느끼였다.

체류기간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자기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는 조선인민의 고결한 정신세계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특히 건축형식과 내용, 규모에 있어서 그 어디에도 비할바 없는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건축물인 주체사상탑에 대한 참관은 나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기였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진리를 밝힌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위대한 혁명철학이다.

력사에는 인민대중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진보적인 사상들이 적지 않지만 주체사상과 같이 자기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세계자주화위업을 힘있게 추동한 혁명학설은 일찌기 없었다.

참관을 통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자주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절감하였다.

김일성주석은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열어놓으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을 따라 승승장구해나가는 조선의 모습은 주체사상의 과학성과 진리성,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지만 사회주의조선에서는 세상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정신차릴새없이 련속공격, 련속강타를 들이대며 당당히 맞서싸우는 주체강국의 위용은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이 세상 그 어떤 힘에도 대비할수 없는 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향도해가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주체의 혁명적당,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이 있어 세계가 공인하고 격찬하는 오늘의 강대한 조선, 위대한 조선인민이 있다.

최후의 승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조선의것이다.

주체사상의 빛발은 영원히 인류의 앞길을 밝혀줄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신봉자의 긍지와 영예감을 간직하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광범한 대중속에 연구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확대강화해나가겠다.

에티오피아-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결성

에티오피아-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가 9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새로 결성되였다.

위원장으로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너가투 다그나체우가 선출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는 유엔개혁문제

10월 24일은 유엔의 날이다.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유엔은 인류가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의 참화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1945년 6월 26일 유엔헌장이 채택되고 그해 10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유엔은 자기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오늘 국제정세는 유엔창설의 취지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고있다.

침략과 전쟁을 생존방식으로 하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간섭과 분렬리간책동으로 말미암아 세계곳곳에서는 류혈참극과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수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중동나라들에서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지속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세계적으로 대규모전쟁이 발생할수 있는 위험이 제일 큰 지역은 조선반도이다.

최근에만도 미국은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숱한 핵전략장비들을 조선반도수역에 끌어다놓고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대규모련합해상훈련에 미쳐날뛰였다.

우리 국가를 압살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끊임없이 감행되는 미국의 무모한 불장난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어느 순간에 핵전쟁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상태에 있다.

보다 엄중한것은 미국이 유사시 조선반도에 일본은 물론 오스트랄리아와 나토성원국들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을 몽땅 끌어들이려 하고있는것이다. 미국과 일본,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해양세력과 대륙국가들사이의 리해관계가 충돌하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은 행성을 파괴하는 대규모전쟁으로 이어질수 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조선반도에서 일어날수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이 우려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세계곳곳에서 전쟁과 분쟁, 무장충돌이 지속되고 국제관계에서 주권평등을 부정하는 힘의 론리가 묵인되고있다.

원인은 유엔에서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을 지닌 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 사명과 기능을 바로 수행하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도 둘째도 활동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는 주권존중과 평등,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미국의 세계제패정책을 합리화, 합법화해주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날치기로 채택되고있다.

그 대표적실례가 바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부당한 《제재결의》들이다. 미국은 올해에만도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유엔의 거수기들을 발동하여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기 위한 《제재결의》들을 여러차례나 조작해냈다. 미국은 유엔의 간판을 악용하여 우리의 손발을 얽어매놓고 나아가서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며 전조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 하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며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우리의 조치들을 문제시하면서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로골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핵전쟁연습소동에 대해서는 입에 쇠빗장을 지른듯 침묵을 지키고있다.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유엔무대에서 조선의 《완전파괴》라는 력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한데 이어 남조선괴뢰들과 북침핵선제타격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것도 모자라 세계적규모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압박소동에 열을 올리는데 대하여 안전보장리사회는 아무런 문제도 세우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특정국가의 패권주의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산증거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토의의제를 론하면서 무엇을 하는가보다도 누가 하는가 하는데 따라 문제시되여야 한다는 미국식론리, 제도상의 차이에 따라 합법성과 비법성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궤변에 맞장구를 치고있다. 이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공정한 국제기구로 될것을 바라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도전이다.

만약 유엔간판을 도용하여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그대로 용납된다면 국제관계에서는 정의와 진리가 말살되고 수많은 주권국가들이 전쟁의 참화를 들쓰게 될것이다.

날이 갈수록 행성에 짙게 드리워지는 전쟁위협을 가시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유엔을 개혁하여야 한다.

주요국제문제해결에서 성원국들의 총의를 대변하는 유엔총회의 최종결정권이 보장되여야 한다.

유엔총회가 유엔의 활동전반을 주관하는것은 응당하며 특히 제재와 무력사용과 같은 평화와 안전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들도 최종검토할수 있는 권능을 가져야 한다.

유엔개혁의 핵심사항인 안전보장리사회개혁은 더는 미룰수 없는 문제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은 활동에서 공정성, 객관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구성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대표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모든 국제문제들을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때 국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믿음직하게 지켜지게 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당당한 유엔성원국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자주권을 존중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성의있는 노력을 다할것이다.

김 수 진

제 리속만 차리려는 고약한 행위

얼마전 트럼프가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을 끝장내겠다고 카나다를 위협하였다.

카나다가 저들의 요구대로 회담에서 굴복하지 않으면 협정자체를 아예 휴지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것이다. 이로써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파기는 초읽기상태에 들어갔다.

략칭 나프타(NAFTA)라고 불리우는 이 협정은 1992년에 체결되고 그로부터 2년후 정식 발효되였다.

협정의 골자는 미국과 메히꼬 및 카나다사이에 교류되는 모든 상품들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것이다.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미국은 수많은 농토산물들을 메히꼬와 카나다에 대대적으로 수출하여 폭리를 보았다. 투자와 에네르기분야에서도 큰 리득을 보았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제창하는 트럼프는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이 자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재앙거리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저들에게 더 유리하게 재협상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지난해 공화당의 대통령후보로 나섰을 때부터 트럼프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자유무역협정때문에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국내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있다고 하면서 대부분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이다. 백악관주인자리를 차지한 트럼프는 초당파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운운하면서 이 협정을 재협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떠들어댔다. 그러나 그것은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을 오직 미국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만들자는 잔꾀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그러한 의도가 짙게 깔린 압박을 카나다와 메히꼬에 련속 가하고있다. 이미 카나다산 목재에 제재관세를 부과한 상태이다. 또한 메히꼬에 진출하였던 자국기업들을 본국으로 소환하는것과 함께 수입품들에 가혹한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있다.

《미국제일주의》를 떠들며 모든것을 자기의 리기적목적실현의 견지에서 강압적으로 해결해보려는 트럼프의 깡패적행위는 지역나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카나다국회의 한 상원의원은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하려는 미국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의 행위는 카나다로 하여금 무역 및 투자의 방향을 미국으로부터 아시아에로 돌려야 한다는것을 더욱 명백히 해주고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앞으로 아시아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칠레의 한 론평원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론조와 《미국제일주의》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경제와 무역에 불안을 가져다주었을뿐아니라 미국과 라틴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를 더욱 격화시켰다고 평하였다.

나라들사이의 관계는 철저히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는것이 국제관례이다. 오직 자기 리속만 차리겠다고 파렴치하게 날뛰는 미국을 곱게 볼 나라는 없다.

《미국제일주의》를 부르짖으며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트럼프패거리들에게 차례질것은 국제적고립과 배격뿐이다.

본사기자

나토의 확대에 우려 표시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가 19일 발트해연안지역에서의 나토의 확대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이 지역에서의 군사정치정세와 나토의 확대는 로씨야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까밝혔다.

그는 미국과 나토가 이러한 전략을 숨기지 않고 시종일관하게 추진하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전지구적인 미싸일방위체계를 창설하기 위해 맹렬히 노력하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전지구적인 미싸일방위체계는 조선이나 이란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명백히 로씨야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미국의 요구를 배격

팔레스티나의 이슬람교항쟁운동(하마스)이 19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요구를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 중동담당특사가 팔레스티나통일정부가 인정받자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무장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를 팔레스티나인들의 화해노력을 방해하는데 목적을 둔 부당한 간섭행위로 락인하였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리익만을 위한 미국의 공갈과 편견적인 요구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미국의 테로지원책동 비난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최근 중동지역에서 테로를 지원하고 전파시키는 미국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을 지원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한쪽에서는 전쟁과 무장분쟁이, 다른 한쪽에서는 테로가 란무하고있다고 까밝혔다.

그는 미국이 이러한 정책들을 고집하는것은 세계와 지역에 부정적인 후과를 미치는 전략적오유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71169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